

## 시진핑 시대 중국 공산당 집단영도체제의 지속과 변화

김용호 (金容浩)

최근 시진핑의 권력 강화에 따른 중국 공산당 집단영도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집단영도체제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 진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1인영도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 이 연구는 제도론적 시각에서 중국 공산당의 집단영도체제를 유지시켜주는 제도와 규범 중에서 변화하고 있는 것과 지속되고 있는 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후진타오 시기의 “동등한 집단영도체제”가 최근 “1인 우위의 집단영도체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시진핑의 정치적 성향, 정치적 명분, 정치 자원, 국내외 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시진핑 영도체제는 마오쩌둥처럼 “독단적 1인 영도체제”는 아니더라도 덩샤오핑처럼 “우월적 1인 영도체제”로 진화해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은 후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현재 국립외교원), 한림대를 거쳐 2002년-2017년까지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임하였다. 한국정당학회와 한국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한 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관급) 등을 맡고 있다. 저서는 <<2016 총선에서 배우다>>(편저), <<한국 정당정치 이해>>, <<북한의 협상 스타일>>, <<외교영토 넓히기: 대한민국 수교 역사>>, <비교정치서설>>(공저), <<민주주의 이론 서설: 미국 민주주의의 원리>>(역서) 등이 있다

**Date & Time: May 24 (Thur.) 2018, 12:00-13:00**

**Place: Concourse (3F), SNUAC (Bldg#101)**